

일본 경제산업성, 제1차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 개최

일본 경제산업성은 제1차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를 개최했는데, 자국기업의 인프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水)비즈니스, 원자력발전 등 중점 11개 분야별로 작업반을 설치해 연말 경까지 종합전략을 제시하기로 함. 이에 따라 한국은 강점인 관민일체의 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 일본 경제산업성은 8월 5일 제1차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지난 6월에 발표한 「산업구조비전 2010」에서 선정한 인프라수출 관련 11개 분야별로 작업반을 설치하고, 연말 경에 각 분야별 대응방안을 모아 종합전략을 제시할 예정
 -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는 관민이 협력하여 일본기업의 인프라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산업장관의 자문기구인 산업구조심의회 내에 새로 설치되었음.
 - 인프라수출 중점 11개 분야 : ① 물(水) ② 석탄화력발전·석탄가스化플랜트 ③ 송배전 ④ 원자력 ⑤ 철도 ⑥ 리사이클 ⑦ 우주산업 ⑧ 스마트그리드·스마트커뮤니티 ⑨ 재생가능에너지 ⑩ 정보통신 ⑪ 도시개발·공업단지
- 경제산업성은 인프라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시스템으로 추진하기 위해 1) 인프라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2) 금융지원 강화, 3) 각국의 계획수립 단계부터의 협력과 전략적 매칭, 4) 지원의 패키지화와 톱(top)외교 추진, 5) 해외전개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규범 대응, 6) 경제산업성 내의 추진체제 강화 및 올 재팬(All Japan) 체제 구축이라는 전체전략을 수립

- 특히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기구(JICA), 국제협력은행(JBIC), 일본무역보험(NEXI),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할 예정
- 또한, 인프라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문화, 교육, 기술협력, 산업인재육성, 파일럿사업 등)도 지원함으로써 인프라수출을 패키지화
- 경제산업성의 인프라시스템수출 추진체제(안)
 - 먼저, 11개 분야별로 경제산업성 내 담당課室長을 좌장으로 하여 성내 관련 과실, JETRO, NEXI, JBIC, JICA를 멤버로 하는 작업반을 구성(NEDO, JOGMEC은 분야별로 참여). 이를 통해 분야별 전략을 책정하여 보고
 - 2단계로 경제산업성의 무역경제협력국이 사무국이 되어 ‘관민연계(PPP)에 의한 인프라시스템추진연락회’를 개최하며, 여기에는 성내 관련 部局 및 관계기관(NEXI, JETRO, NEDO)이 참여. 경제산업성 차원의 대응방안을 정리하여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에 보고
 - 3단계로 인프라시스템수출부회를 개최하여 종합적인 전략을 검토 회장은 우라타 슈지로 와세다대 교수이며, 업계, 협회, 교수 등 총 20명으로 구성

□ 일본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신성장전략」의 핵심 부분인 자국기업의 인프라수출 지원을 위해 연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예정인바, 한국은 강점인 관민일체의 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

<참고자료>

經濟産業省홈페이지

日本經濟新聞(2010.8.2 / 2010.8.6)